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A Study on the Buddhist Sculpture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mun, Late Silla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78) , 2013.6, 5-30(26 pages)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Formerly Art and Archaeology) (278) , 2013.6, 5-30(2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학회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30235
APA Style	임영애 (2013).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278), 5-3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6: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임영애*

- I. 머리말
- II. 혼란 이후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문왕대의 불교
- III.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현황
- IV.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인식
- V. 맺음말

I. 머리말

신라의 불교조각은 경덕왕(재위 742~765)대의 황금기를 지나고 나면 절대왕권의 쇠퇴와 함께 양식적으로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이때는 신라사 시기구분에 따르면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데,¹ 이 시기 조각의 특징은 통상 ‘지방화’, ‘현실화’라는 단어로 대표되거나, 혹은 ‘종교적인 정신성과 형태의 긴장감이 약화되면서 몸이 왜소해지고 조형적으로도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규정되기도 한다.² 양식적인 면만을 두고 보면 신라 하대의 조각이 중대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음은 이전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를 두고 이 시기 불교 사원들의 불사가 지방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졌으며, 불교조각도 지역적인 특성을 형성하고 차차 토착화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왔다.³ 그 결과 신라 하대에는 불상, 그 중에서도 특히 비로자나불상이 수도인 경주에서 제작된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1 『삼국사기』에 적용된 三代法에 따라 이 글에서의 신라 하대는 제37대 선덕왕(재위 780~785)~제56대 경순왕까지를 지칭한다.

2 문명대, 『한국조각사』(열화당, 1984), pp. 160-161 ; 강민기, 이숙희, 장기훈, 신용철 지음, 『클릭 한국미술사』(예경, 2011), p. 109.

3 김리나 외, 『한국불교미술사』(미진사, 2011), p. 66.

상은 거의 없고 주로 지방에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양식의 불상 조각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불상은 역시 비로자나불상이다. 흥미롭게도 비로자나불상은 766년 석남 암사 비로자나불좌상 이후로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몇몇 예가 있기는 하지만, 9세기 전반 작품으로는 분명하게 확인되는 작품이 없다. 비로자나불상은 9세기 전반의 침체기를 지나 9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급증한다. 766년 석남 암사 비로자나불상 이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분명한 비로자나불상은 현안왕(재위 857~860)대 858년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뿐이며, 그 뒤는 경문왕, 헌강왕대에 조성된 상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⁴ 특히 경문왕대는 가장 많은 수의 비로자나불상이 남겨져 있다. 이처럼 9세기 후반 명문이 있는 비로자나불이 많은 점을 두고 9세기 전반에도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한 각종 불교조각이 활발히 조성되었지만 현전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⁵ 하지만 기록을 지닌 불상이 9세기 후반에 압도적으로 많아진 경향이 결코 우연히 빚어진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신라 하대 9세기 중~후반에 왜 비로자나불이 집중적으로 유행했는가, 그것도 왜 경문왕대에 특히 유행했는가에 주목하려고 한다. 비로자나불상에 대해서는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지만 주로 비로자나불의 기원문제와 지권인의 연원 및 수용,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의 성립 문제에 주목하였으며,⁶ 왜 이 시기에 특별히 유행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⁷ 또 지금까지 신라 하대 불상은 지방호족과 관련 깊으며, 9세기 전반 선종이 본격적으로 전래되면서 비로자나불상도 함께 급격히 유행한 것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선종과 신라 하대 왕실과

4 847년경 문성왕대 성주사의 대형 철불이 있지만, 기록으로 비로자나불상인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단 제외한다. 이 철불은 시무외·여원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김춘실, 「聖住寺의 鐵佛」, 『考古美術史論』 6(1999), p. 96 참조), 삼화사 노사나불의 경우로 비추어 보면 노사나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5 강우방, 「한국 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 『원융과 조화』(열화당, 1990), p. 469.

6 신라 하대 비로자나불상의 기원문제, 지권인의 성립, 형식 및 양식 특징에 관해서는 문명대, 「신라 하대 편년 비로자나불상」, 『한국의 불상조각』 2(도서출판 예경, 2003), pp. 212-257 ; 강우방, 앞의 책, pp. 427-479 ; 강희정, 「신라하대의 석조비로자나여래좌상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pp. 36-67 ; 김리나·이숙희, 「통일신라시대 智拳印 毘盧舍那佛像 研究의 쟁점과 문제」, 『미술사논단』 제7호(1998 하반기), pp. 227-263 ; 이숙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 250·251(2006), pp. 55-68 ; 서지민, 「나말여초 비로자나불상 제 형식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10(2010), pp. 53-69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7 이와 관련하여 '9세기 중엽에 이르러 경문왕대의 왕권강화 정책과 함께 화엄사상을 비롯한 대승불교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자나불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면서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 견해가 있다(이숙희, 앞의 논문, p. 74).

의 관계, 선종과 교종, 특히 화엄종과의 관계, 구산선문과 선승들의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문왕과 선승의 관계는 경문왕대 불교 조각의 급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이에 따라 신라 하대 불교조각의 전체 흐름도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신라 하대, 특히 경문왕대의 불교조각을 개체가 아닌 전체로 바라보려 한 것이다.

II. 혼란 이후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문왕대의 불교

신라 제38대 元聖王(在位 785~799)은 ‘원성왕’이라는 그의 시호가 암시하는 것처럼 신라 하대의 새로운 왕통을 일으킨 실질적인 개창자이다. 잘 알려진 대로 내물왕 12대손인 원성왕은 무열왕계인 김주원과의 권력다툼에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집권해 온 무열왕계를 종식시켰다.⁸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의 재위기간 동안은 순탄치 못했다. 원성왕 사망 당시 그의 세 아들은 모두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장손인 소성왕(재위 799~800)이 그의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소성왕도 재위 1년 6개월 만에 사망하고, 그의 태자인 13세의 애장왕(재위 800~809)이 즉위했다. 하지만 정치적 실권은 왕의 숙부인 언승에게 돌아갔고, 809년 조카인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헌덕왕이다.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시련기인데, 814년 여름 國西지방에 홍수가 발생한 이래 매년 흉년이 들었고, 815년 이래 각지에서 초적이 발생하여 국내가 소란하였을 뿐 아니라 이윽고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다. 아울러 9세기 전반에 농민들이 도적이 되어 봉기하였다는 기록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덕왕과 흥덕왕 치세에는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나라가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흥덕왕의 사후에 다시 일어난 극심한 왕위쟁탈전의 전개는 국왕의 권위를 상실케 하는 것이었다. 9세기 말에 완성된 <崇福寺 碑銘>에는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처음 절을 옮김에 있어 비록 보탑이 솟아 나온 것과 같이 빠르게 끝나긴 하였으나 미처 절다운 모양을 갖추지는 못했다. 겨우 가시덤불을 쳐내고서야 언덕과 산을 구별할 수 있었고 초가와 섞인 채로 비바람을 피해냈다. (원성왕 사후) 겨우 70여년을 넘긴 사이 갑작스럽

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元聖王條; 김수태, 「신라 선덕왕·원성왕의 왕위계승-원성왕계의 성립과 관련하여-」, 『동아연구』 6(1985), pp. 295-312; 권영오, 「신라 원성왕의 즉위 과정」, 『釜大史學』 19(1995), pp. 143-169.

게 아홉 임금이나 바뀌어 여러 번 전복을 당하여 미처 잘 꾸밀 겨를이 없었는데 경문대왕의 殊勝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천 년의 보운이 일그러짐이 없었다.⁹

위의 <승복사 비명>은 잘 알려진 대로 제48대 경문왕(景文王 재위 861~875)대에 鶴寺를 중창하면서 승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그 내력과 의도를 최치원(857~?)에게 의뢰해 지은 것이다(도 1). 원성왕이 사망하기 한 해 전, 국사는 원성왕릉 조영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원래 위치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새롭게 지어졌다. 당시는 상황이 열악하여 제대로 복원할 수 없었고 이 후 70여 년 동안에도 미처 꾸밀 겨를이 없었지만, 경문왕대의 수승한 인연이 있어 승복사로 이름을 바꾸어 중창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적은 것이다.¹⁰ 경문왕대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경문왕의 즉위와 함께 원성왕계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60여년의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문왕의 자녀인 현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그리고 경문왕의 손자이며 현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에 이르기까지 5명의 일가가 왕위를 독점하며 50년간을 이끌어갔다. 특히 경문왕부터 그의 장남인 현강왕에 이르기까지 약 25년간은 신라 하대가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이다.



도 1 승복사지 쌍귀부, 9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사진 임영애)

하지만 경문왕은 원성왕 후손들 가운데 세력이 약한 현정계의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정통 왕위 계승자가 아닌 현안왕의 사위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진골귀족들과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경문왕은 도전 가능성이 있는 인겸계 귀족들을 회유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썼다. 특히 직계조에 대한 奉祀를 강조하

⁹ 최영성 역주, 『최치원 전집 1 사산비명』(아세아문화사, 1998), pp. 234-235.

¹⁰ 승복사와 함께 원성왕릉의 조각, 즉 석인상, 십이지상, 獅子像도 경문왕대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본 논고는 임영애, 「신라하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왕릉 조영과 왕릉 조각의 시기 불일치 문제-」(『불교미술사학』 14(2012), pp. 7-33)이 있다. 이는 <승복사 비명>에 기록된 ‘곧 선대(先代 원성왕)를 계승하여 절을 중수하고 위엄으로 능력을 호위할 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라든지, 경문왕의 꿈에 원성왕이 나타나 ‘나는 너의 선조이니라. 네가 불상을 세우고 나의 능력을 꾸며 호위하고자 하는데’(최영성 역주, 앞 책(1998), p. 240)라는 대목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두 번이나 등장하는 ‘능역의 호위’라는 표현은 왕릉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호석에 새겨진 갑옷의 십이지상이라든지, 주먹을 불끈 쥐는 능 입구의 석인상이 능력을 수호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고, 각 가문의 기복을 위해서 원당을 경영하거나 불탑을 건립하는데 힘쓰며, 왕실의 혈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¹¹ 이처럼 경문왕은 즉위 후 자신의 왕위에 도전하는 다른 왕실귀족, 특히 인검계를 위로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하대의 중시조에 해당하는 원성왕을 통해 분열된 왕실을 통합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였다. 경문왕은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 왕권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¹² 우선 경문왕은 官名을 모두 漢式으로 개정한 漢化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¹³ 관련 기록은 최치원의 비문이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경문왕이 ‘궁벽한 우리 나라의 풍속을 바로잡아 깨끗하게 하였다’라든지¹⁴, ‘신의 亡祖 贈太師 凝(경문왕)이 지난 咸通 연간에 (중국의) 교화를 행하여 천하가 풍속을 같이 하였다’는 등의 언급은 신라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두 나라의 풍속이 같아졌음을 의미한다.¹⁵ 이는 현강왕대도 마찬가지이다.¹⁶

한화정책과 함께 경문왕의 주목할 만한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적극적인 불교정책의 추진이다.¹⁷ 경문왕은 왕위에 오른 후 제일 처음 서두른 일이 바로 승복사의 중창 역사였다.¹⁸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승복사 중창을 필두로 하여 많은 불사를 일으켰으며, 쉬지 않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¹⁹ 그의 대규모 불사의 배경에는 선종과 화엄종 승려의 힘이 컸다. 잘 알려진 대로 경문왕과 깊이 관련된 선승의 숫자는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많다. 『祖堂集』, 금석문 등과 같은 각종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경문왕과 관련 있는 선승은 대략 10여명이며, 결언, 현준 등과 같은 화엄종 승려도 있다. 우선 선승은 10명인데, 이 중 5명은 선문구산의 개산승려이다(표 1 참조). 이 점만으로도 경문왕이 여러 선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확인된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선승으로는 秀澈화상(816~892)이 있다. 경문왕은 861~868년 무렵 수철화상을 왕실로 초청하여 敎

11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학연문화사, 2002), pp. 307-314 ; 이기봉, 「신라 경문왕대의 정국운영과 재이」, 『신라문화』 39(2012), pp. 93-94 ; 송은일, 「신라하대 경문왕계의 성립」, 『전남사학』 22(2004), p. 131.
 12 전미희, 「신라 경문왕, 현강왕대의 『能官人』 登用政策과 國學」, 『동아연구』 17(1989), pp. 45-59.
 13 전덕재, 「신라 경문왕, 현강왕대 漢化政策의 추진과 그 한계」, 『동양학』 50(2011), p. 67.
 14 최영성 역주, 앞의 책, p. 235.
 15 崔致遠 「謝恩表」, 「臣以亡祖贈太師凝 頃遇咸通中 化行而天下同風」(『東文選』 卷33).
 16 ‘太傅大王(현강왕)이 중국의 풍속으로 弊風을 一掃하고…(太傅大王 以華風掃弊)’, 893년경 최치원 찬술 봉암사 지증대사탑비(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1992), pp. 191, 206).
 17 조범환, 「신라 하대 경문왕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16(1999), pp. 29-44.
 18 장일규, 「승복사 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역사학보』 192(2006), p. 63.
 19 김창겸, 「신라경문왕대 『修造役事』의 정치적 고찰-왕권강화책과 관련하여-」, 『계촌 민병대학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성동문화사, 1988), pp. 55-58, pp. 67-68 ; 安鼎福 『東史綱目』 第五上 甲午條 景文王代 ‘修造之役不休.’

와 禪의 同異, 즉 교종과 선종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직접 물었다.²⁰ 경문왕의 질문에 대해 수철은 “깊은 궁궐에는 예로부터 천개의 미로가 있으나 (불필요) 한 것은 끝내 없습니 다”라고 대답하여 ‘교와 선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²¹ 이와 관련하여 경문왕은 선교양종 모두를 경주에 균등하게 융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²² 이처럼 경문왕계 왕실은 기존의 교종계는 물론 선승들과의 결연을 통해 선종불교계의 협조를 얻 어냄으로써 교종과 선종을 융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경문왕의 노력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화엄종과 선종은 물론이고 법상계통의 사찰에서도 비로자나불이 조 성되는데 기여하였다. 또 경문왕대에는 지방 사찰뿐 아니라 경주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비 로자나불상이 조성되었는데 이 역시 경문왕이 선교양종을 경주에도 균등하게 융화시키려 했던 그의 불교정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 경문왕과 관련된 선종승려

시호	법명	생졸년	경문왕과의 관계	개창산문
적인선사	慧徹	785~861	경문왕8년 시호와 탑호를 내림	동리산문
원감대사	玄冕	788~869	경문왕이 고달사에 주석하게 함	봉림산문
철감선사	道允	798~868	경문왕의 귀의	사자산문
낭혜화상	無染	800~888	경문왕이 시행할 것은 반드시 물은 후에 거행	성주산문
보조국사	體澄	804~880	가지산사를 선교성에 소속시키고 지원	·
원랑선사	大通	816~883	경문왕이 월광사에 주지하게 함	·
홍각선사	利觀	816?~886	경문왕의 초청을 받고 돌아가 역성사 수리	·
수철화상	秀澈	816~892	경문왕대 국사. 禪教同異 질문, 심원사 주석	·
지증대사	道憲	824~883	경문왕이 도현에게 국정운영 도움을 청함	희양산문
了悟화상	順之	?~?	경문왕으로부터 예우, 874년 瑞雲寺에 주석	·

Ⅲ.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현황

신라 하대 9세기 불교조각 중 기록으로 대략의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예는 경문왕대 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문왕 재위 15년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

20 <深源寺 秀澈和尚塔碑>(『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1992), p. 168); 정선종, 「실상사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2009), pp.187-190; 정동락, 「수철화상(815~893)과 신라왕실」, 『한국고대 사탐구』 3(2009), p. 101

21 <深源寺 秀澈和尚塔碑>(『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1992), p. 168); 정동락, 앞의 논문, p. 100.

22 한기문, 「고려태조의 불교정책」, 『대구사학』 22(1983), p. 41.

만 6점이다. 그 중 3점, 즉 863년경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5년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867년경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실물이 남아 있지만, 나머지 3점은 기록으로만 확인된다(표 2 참조). 제작시기가 경문왕대라는 기록은 없지만 대략 이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삼화사 철조노사나불, 864~881년경 봉암사 철불 2구²³, 873년 추정 역성사 석조비로자나불상²⁴, 좌우 협시보살의 대좌만 남아있는 불국사의 석조비로자나삼존상²⁵과 같은 작품까지 헤아리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9세기 전반 대략 50여 년간 기록으로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작품이 불과 4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경문왕대 15년간에 제작된 것이 분명한 불상만 6점이라는 점은 대단히 많은 숫자이다.²⁶ 흥미롭게도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6점의 작품 중 5점이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이며, 나머지 1점은 존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이다. 또 동화사와 축서사 비로자나불좌상처럼 석불도 있지만 나머지는 철불, 그것도 크기가 큰 철불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경문왕대의 불교조각

	제작연대	작품명	재질	존명	現傳
1	861년	송복사 노사나불	·	노사나	
2	862년	장안사 비로자나불	철	비로자나	
3	863년경	동화사 비로자나불	돌	비로자나	o
4	864년	현계산 안락사(現거둔사) 장육상	철	·	
5	865년	도피안사 비로자나	철	비로자나	o
6	867년경	축서사 비로자나	돌	비로자나	o

경문왕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송복사를 중창하고 노사나불을 조성하였다.²⁷ <송

²³ 황수영, 「통일신라시대의 철불」, 『미술사학연구』 154·155(1982), pp. 22-23.

²⁴ 현재 선림원지에는 홍각선사비가 있다. <홍각선사비>에 ‘함통 말에 다시 설산의 역성사로 가서 (마멸) 금당과 불전을 이루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선림원지를 역성사로 추정하기도 한다(권덕영, 「홍각선사탑비문을 통해 본 신라 역성사지의 추정」, 『사학연구』 55·56(1998), pp. 80-83, 87-88).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림원지에서 약4km 떨어진 서림초등학교에 위치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원래 선림원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비로자나불좌상을 873년경 홍각선사가 조성한 역성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본 견해도 있다(문명대, 「선림원 본존불상 문제와 석비로자나불상」, 『원음과 고전미』(도서출판 예경, 2003), pp. 305-318).

²⁵ 문명대, 「불국사 석비로자나삼존상 대좌」, 『한국의 불상조각』 2(도서출판 예경, 2003), pp. 291-298.

²⁶ 801년 방어산 마애불, 835년 윤을곡 마애불, 847년경 성주사 철불, 858년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이 이에 해당하는데, 810년의 기년명을 가진 창녕 인양사 塔金堂治成文記碑와 승상은 이 시기의 작품이지만 불상이 아닌 승상이며, 또 진천의 태화4년(830)명 마애불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불분명한 점이 많아 제외하였다.

²⁷ ‘겹으로 된 불전에는 용이 서린 듯한데 가운데에다 盧舍那佛을 주인으로 모셨으며, 층층 누각엔 봉새가 머문 듯한데 위에다 修多羅로 이름하였다’(최영성 역주, 앞의 책, p. 243).



도 2 복원 후의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9세기 후반, 강원도 동해시(사진 임영애)

복사 碑銘)에는 노사나불을 승복사 불전에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불상의 재료나 그 밖의 세부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같은 <승복사 비명>에 ‘華嚴大德인 決言이 이 절에서 王旨를 받들어 닷새 동안 불경을 講하였으니...’²⁸라는 문구를 통해 승복사가 화엄종 사찰이며, 화엄대덕인 결언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결언의 이름은 삼화사 노사나철불의 배면 명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삼화사가 본래 사굴산문과 관련있는 선종사찰이지만 당시 화엄종과의 교섭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²⁹ 이 뿐 아니라 신라 하대 선종승려들이 화엄종을 먼저 접하였거나 교종사찰에서 수계를 받은 예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신라 하대 화엄

종과 선종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³⁰ 삼화사 철불은 신라 국왕의 敎에 의해 화엄승려 결언이 중심이 되어 경문왕대에 조성되었다고 본다.³¹ 승복사와 삼화사의 노사나불은 명확하게 신라 왕실과 연결되는 작품이다(도 2).

이듬해에는 장안사에 철조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된다. 이 철불의 석조광배 뒷면에 새

²⁸ 최영성 역주, 앞의 책, p.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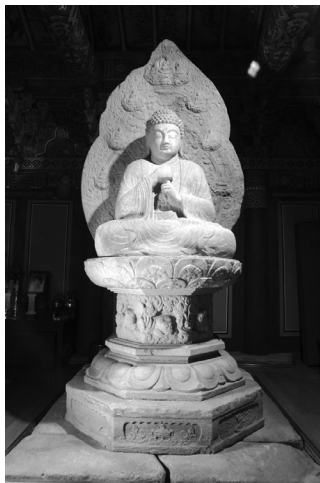
²⁹ 삼화사 철불 명문에 화엄승 결언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명문의 중심인물이 결언이 아니므로 철불의 조성시기와 결언의 활동 시기는 무관하다고 보기도 한다(김창호·한기문, 「동해시 삼화사 철불 명문의 재검토」, 『강좌 미술사』 12(1999), p. 187). 하지만 삼화사 철불이 9세기 중엽경 조성된 실상사 철불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세기 후반 경문왕대의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실상사 철불과 삼화사 철불의 관계에 관해서는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2011), p. 45을 참조하기 바란다).

³⁰ 신라 하대 기종의 화엄종과 선종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공존하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김상현, 「新羅下代 華嚴思想과 禪思想 : 그 갈등과 공존」, 『新羅文化』 6(1989), p.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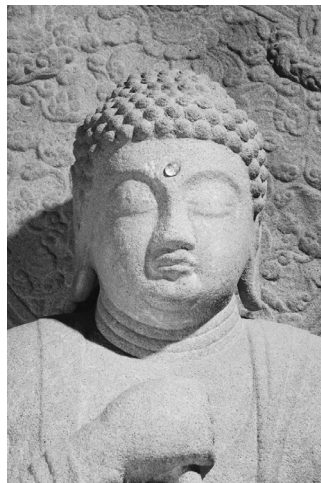
³¹ 이 글의 각주 29 참조; 삼화사 철불의 제작 시기 추정은 저마다 다르다. 경문왕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930년 전후에 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삼화사 철불과 그 명문에 관해서는 문명대, 「元曉系 華嚴宗 本尊佛 問題와 三和寺 鐵盧舍那佛像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36(2002), pp. 69-96; 황수영, 「삼화사 신라철불좌상의 背刻銘記」, 『한국문화유산의 위상제고』(동해문화원, 1997), pp. 19-24; 김상현, 「삼화사철불과 華嚴業 決言大德」, 『文化史學』 11·12·13(1999), pp. 435-451을 참조.

겨진 명문을 통해 862년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³² 명문에는 승려 覺賢이 경문왕2년(862)에 장안사에 비로나자불을 鑄成해 모시고 다함께 연화장세계에 參詣할 수 있기를 발원하는 내용이 적혀있다.³³ 장안사의 철조비로자나불상은 불상 뿐 아니라 광배 역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경문왕3년인 863년에는 동화사에 閔哀王(재위 838~839)을 추모하기 위한 삼층석탑과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였다(도 3, 4). 인겸계를 회유하여 凡원성왕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화사 비로자나상은 대구에 조성되었지만 신라 왕실에서 발원하였기 때문에 당시 중앙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좋다. 앞서 언급한 승복사 노사나불도 동화사 비로자나불과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특히 등근 얼굴에 단정한 이목구비, 등근 어깨, 높이가 높고 두툽한 무릎은 9세기 후반의 시대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화사가 대표적인 법상종 사찰이라는 점이다. 그런



도 3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3년, 보물 제244호, 대구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사진 오세운)



도 4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얼굴(사진 오세운)

데 이곳 동화사에 비로암을 별도로 조성하고 화엄종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이야기할 865년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 역시 법상계통과 관련있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상기하면, 9세기 중~후반의 신라 하대 비로자나불은 선종은 물론이고, 화엄종, 법상종과 같은 敎派와 크게 상관없이

³² 이 내용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 글은 허홍식, 「고려시대의 새로운 금석문자료」, 『대구사학』 17(1979), pp. 2-3이다. 현재 이 광배의 행방은 알 수 없으나 1942년 金坦月에 의해 편찬된 『楡岾寺本末寺誌』에 수록에 명문이 수록되어 있다. 장안사를 화엄종 사찰로 보기도 하고(김상현, 앞의 논문(1999), p. 446), 선종 사찰로 보기도 한다(곽승훈,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변동」, 한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1998), p. 185).

³³ 「長安寺毘盧遮那佛銘文」, 『楡岾寺本末寺誌』(1994), pp. 384-385.

조성되었던 듯하다.³⁴

경문왕4년에는 賢溪山 安樂寺에 1장6척의 철불이 주조되었다.³⁵ 이 장육존상 역시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현계산은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산이며, 안락사는 지금의 거둔사이다. 이 거대한 철불은 경문왕의 누이인 단의장 옹주가 희사한 것인데, 앞서 <표 1>의 선승인 지증대사 도현(824~883)이 이곳에 주석하였다. 도현은 희양산문을 개창하기에 앞서 경문왕4년(864)에 단의장 옹주가 자신의 受封地인 토지와 노비를 사원에 기증함을 보고 감격하여 장원 12區와 딸린 토지 500결을 희사하였다. 도현은 현계산 안락사를 본거지로 하여 희양산 용암봉곡에 봉암사를 건립하게 된다.³⁶ 도현은 861년경 경문왕의 부름은 거절하였지만, 경문왕의 누이가 희사한 안락사에 주석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경문왕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한편 도현이 창건한 봉암사에 864~881년 사이에 조성하였다는 철불상 2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봉암사에 조성되었다는 철불상 2구 중 1구는 양손을 잃어 존명을 알 수 없지만, 나머지 1구는 역시 철조비로자나불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⁹ 양손을 잃어 존명을 확인할 수 없는 철불은 20세기 전반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지금은 사라지고 귀의 일부분만이 동국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⁴⁰

경문왕5년인 865년에 제작된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경문왕 시기에 조성된 불상일 뿐 왕실과의 관련은 찾아볼 수 없다. 도피안사 철불은 잘 알려진 대로 철원의 1500

34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의 조상기 내용에 당 태종이 지은 <大唐三藏聖教序>의 내용 일부가 인용되어 있음을 들어 도피안사가 법상종 관련 사찰임을 밝힌 논고로는 곽승훈,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국학자료원, 2002), pp. 221-231이 있다.

35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 ‘곧 1장 6척되는 철불상을 주조하여 금을 입혔다. 여기에 봉안하여 절을 진압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데 사용하였다.’(허홍식, 『韓國金石全文』(아세아문화사, 1984), p. 251). 지증대사적조탑비는 지증대사 도현을 현창하기 위하여 진성왕 7년(893) 무렵 찬술되었으며, 경애왕1년(924)에 문경시 봉암사에 건립되었다.

36 한기문, 「고려시대 봉암사와 희양산과의 추이」, 『불교연구』 34(2011), p. 54.

37 ‘태사에 추증된 경문대왕께서는 마음으로는 유·불·도 삼교에 융회한 분으로서 직접 대사를 만나 뵈고자 하였다. 멀리서 그의 생각을 깊이 하고, 자신을 가까이 하면서도와주기를 희망하였다(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p. 204’.

38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 ‘기와로 인 처마가 사망으로 이어지도록 일으켜 지세를 진압케 하고, 쇠로 만든 불상 2구를 주조하여 절을 호위하도록 하였다.’(허홍식, 앞의 책, p. 251).

39 『智異山實相寺事蹟』 ‘신라 흥덕왕 3년(828년) 개산 당시에 주조한 조상인데, 당시 九山에서 일반본존으로 崇奉하던 노사나불이니 陽山之鳳巖寺와 迦智山之寶林寺에도 此와 同様の 鑄像을 奉寘하였는데 寶林寺普照碑中에 노사나불이라고 하였다(김영수·황수영, 『知異山實相寺事蹟(上)』, 『미술사학연구』 108(1970), p. 21).

40 황수영, 앞의 논문, p. 22.

여명에 달하는 지방 신도들의 열렬한 신앙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도 5).⁴¹ 최근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의 등에 새겨진 명문 분석을 통해 도피안사가 법상계통의 사찰이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어도 경문왕대의 비로자나불상은 화엄종, 선종, 법상종 등 다양한 조성 배경아래 제작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⁴²

경문왕7년 무렵, 즉 867년경 경북 봉화 축서사에도 비로자나불좌상이 만들어졌다(도 6). 불상에 직접 명문이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삼층석탑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신라 헌덕왕대 侍中이었던 伊滄 金亮宗의 막내딸 明端이 부모를 위해 발원하여 867년에 삼층석탑과 함께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명단은 승려 彦傳의 막내 누이동생이기도 하다. 삼층석탑 안에는 황룡사 승려 賢炬의 인도를 받아 불사리 10과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었다고 한다. 탑과 불상을 발원한 집안은 경주의 중앙귀족인 진골 가문 출신이



도 5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865년, 국보 제63호, 강원도 철원군 도피안사 (사진 임영애)



도 6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7년 상 높이 1,08m, 보물 제995호, 경북 봉화군 축서사 (사진 임영애)

⁴¹ Lim Youngae, “Vairocana Buddha of Dopiansa Temple”, *Koreana* Vol.22, No.2(SUMMER 2008.7.), pp. 50-53.

⁴² 신라 하대 화엄뿐 아니라 법상 등의 사원을 선종으로 전환시킨 가지산사, 월광사, 진구사, 대안사 등도 좋은 참고가 된다(한기문, 「신라말 선종사원의 형성과 구조」, 『한국선학』 2(2011a), p. 14,49). ; 광승훈, 앞의 책, pp. 221-231.

서 왕실과 관련이 있지만, 4년 전에 조성된 왕실 발원의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는 양식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대좌의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략 9세기 중~후반부터 삼단팔각연화대좌에 고임석이 추가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때 고임석은 별도의 석재로 따로 제작하여 중대와 하대 사이, 즉 하대의 복련 위에 삽입되어 중대를 받친다.⁴³ 동일한 형식의 대좌는 동화사, 도피안사,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뿐 아니라 제작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11),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상(도 15),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쉽게도 경문왕8년부터 15년까지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불상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9세기 후반 무렵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비로자나불좌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문왕대 전국적인 불교조각의 유행은 계속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려 한다. 경문왕대에는 불상 조성뿐 아니라 불교관련 행사도 적지 않게 행해졌다. 경문왕 5년에는 감은사에 행차하여 망제를 지내기도 하고, 6년 정월 15일에는 황룡사에 행차하여 재래 풍년기제의 전통을 이어받은 看燈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⁴⁴ 또 8년 2월에는 경문왕과 나중에 진성여왕이 되는 그의 큰 딸이 함께 개신사 석등 건



도 7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868년, 국보 제57호, 높이 2.3m, 전남 화순군(사진 임영애)



도 8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868년 보물 제170호, 전남 화순군(『國寶石造』, 1989, 圖180)

⁴³ 신라 하대 9세기 중엽 이후의 대좌형식에 관해서는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신라문화』 38(2011), p. 290을 참조하기 바란다.

⁴⁴ ‘황룡사에 행차하여 看燈하였다’(『三國史記』 11, 景文王 6년 정월 15일).

립 불사에 참여하였으며,⁴⁵ 같은 해 쌍봉사 철감선사비와 승탑이 세워졌다(도 7,8).⁴⁶ 경문왕 10년인 870년에는 현안왕(재위 857~860)의 극락왕생을 위한 보림사 탑과 석등이 건립되었다.⁴⁷ 또 868년 6월 황룡사의 탑이 두 번째 벼락을 맞아 파손되자 재위 11년인 871년 8월 12일에 황룡사구층목탑 중수를 시작하였고 1년만인 872년 7월에 공사를 마쳤다.⁴⁸ 1년 만에 완성한 목탑의 높이가 22장으로 창건 당시의 225척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놀라운 일이다.⁴⁹ 경문왕 12년인 872년에는 대안사 적인선사 혜철(785~861)의 조륜청정탑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⁵⁰ 이처럼 경문왕대의 불교미술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 숫자가 많으며, 지역도 전국적이어서 경문왕 당시 경제적 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⁵¹

한편 신라 하대에 대형의 철조 비로자나상들이 조성된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실상사 철불(도 9), 858년 보림사 철불(도 10)을 필두로 862년 장안사 철불, 864년 안락사의 장육철불, 865년 도피안사 철불, 864~881년경 봉암사의 장육철불, 삼화사 철불과 같은 거대한 철불이 9세기 후반 경문왕대 집중되어 있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철조불상의 제작 및 유행에 관해 장보고의 몰락으로 동 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기도 하고,⁵² 신라인들의 중국 왕래가 이전에 비해 활발해짐에 따라 당의 대형 철

⁴⁵ 『경문대왕님과 文懿皇后님, 그리고 큰 공주님께서는 불을 밝힐 석등을 세우기를 바라셨다』(『개신사 석등기』,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pp. 289, 291).

⁴⁶ <쌍봉사철감선사탑비>는 현재 비신은 사라지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다. ; 철감선사에 관해서는 조범환, 『신라하대무진주지역 불교계의 동향과 쌍봉사』, 『제주해양포럼』 2004-1(2004), pp. 47-62을 참조할 것.

⁴⁷ 경문왕 10년에 현안왕의 왕생을 위하여 서원부 소운 나마 김수종이 칙명을 받들어 탑을 조성하였다(『寶林寺北塔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pp. 332-334);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2013), pp. 57-61.

⁴⁸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景文王11年 春正月 ‘王命有司 改造黃龍寺塔’; ‘明年七月九層畢功’(『黃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황수영, 『韓國金石遺文』(일지사, 1978), pp. 160-161);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황룡사 중문과 중문의 금강역사상도 경문왕대 황룡사구층목탑을 중수하면서 함께 조성된 것이라고 본다.

⁴⁹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景文王13年(873) ‘春九月 黃龍寺塔成 九層高二十二丈’; 『三國遺事』卷3 塔像 4 黃龍寺九層塔; 『삼국사기』에는 황룡사 목탑이 873년에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황룡사 찰주본기에 따라 872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⁵⁰ 적인선사가 861년 입적하자 이틀 뒤 장사를 지내고 그곳에 승탑을 세웠고, 868년 경문왕이 건비를 허락하고, 시호와 탑호를 내렸다(『大安寺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pp. 45-46).

⁵¹ 경문왕대 석조미술에 관해서는 박경식, 『신라 경문왕대의 석조미술에 관한 연구-기단부 양식을 중심으로-』, 『사학지』 22, 단국대 사학회, 1989(박경식, 위의 책, pp. 307-330에 재수록)도 주목한 바 있다. ; 이 밖에도 경문왕 8년 가을 8월에는 조원전을, 2월에는 月上樓를, 14년 가을 9월에는 월정당을 중수하였다(경문왕대의 각종 공사에 관해서는 김창겸, 앞의 논문, pp. 55-58, pp. 67-68을 참조).

⁵² ‘금동이 아닌 철로 불상을 조성한 이유는 장보고 선단의 몰락과 연관이 깊다. 당시 해상중계무역의 장악한 장보고 선단은 중국에서 대량의 동전을 확보하여 신라와 일본의 사찰에 공급하였다. 841년 장보고의 죽음과 844년 당 무종의 회창폐불을 계기로 장보고 선단을 통한 동 의 수급이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강진우, 앞의 논문, pp. 30-34).



도 9 실상사 철불, H,273cm, 전남 남원 실상사 약사전(『남원지역의 철불』, 국립중앙박물관, 2011, 도7)



도 10 보림사 철조노사나불, 858년, 국보 제177호, 전남 장흥 보림사(사진 임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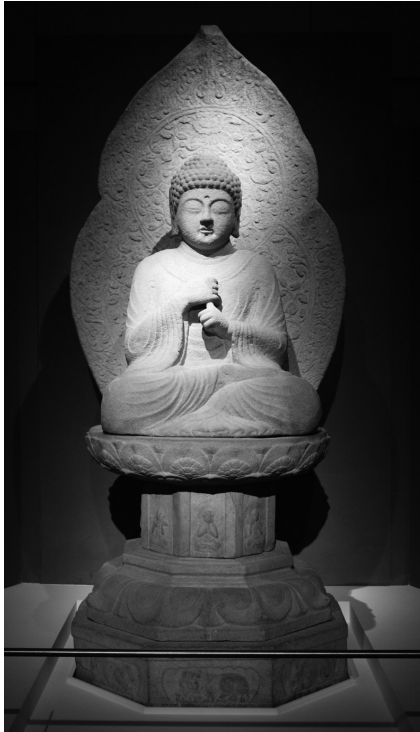
불상들의 견고하고 경제적인 철불의 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⁵³ 어떤 이유로 철불 제작이 시작되었던지 간에 9세기 중~후반에 거대한 철불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선종 사찰에서 노동력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더라도 대안사 적인선사 혜철의 문하에 100여인, 보림사 체징 문하에 800여인, 성주사 무염의 문하에 2000인, 봉림사에 500여인 등 각 문하에 적게는 100여인, 많게는 2000여인의 禪衆이 있었다.⁵⁴ 각 선사의 문하에 수백 명에 달하는 선종이 있었기에 당시 선종 사찰에서 철불, 願塔, 석등, 석비 등 각종 불교미술을 제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IV.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인식

앞서 보았듯이 신라 하대 경문왕대에 제작된 것이 확실한 불상만 6점이며, 존명을

⁵³ 최성은, 「장보고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32(2010), p. 15.

⁵⁴ 한기문, 앞의 논문(2011a), p. 25에 잘 정리되어 있다.



도 11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전체 높이 280,0cm, 9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임영애)



도 12 불국사 석조비로자나삼존의 코끼리 대좌, 9세기 후반, 불국사(사진 임영애)



도 13 불국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의 대좌 중 七獅子 중대, 9세기 후반, 불국사(사진 임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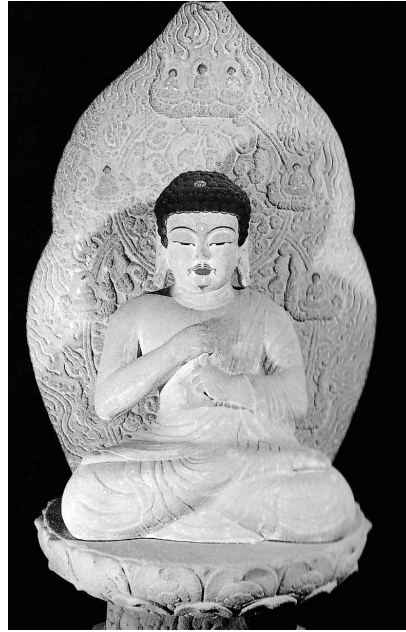
알 수 없는 안락사의 철조장육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이다. 기록으로 분명하게 확인되

는 이들 6점 이외에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짐작되는 수많은 불상이 있다. 예컨대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 봉암사 장육철불상 2구, 지금의 선림원지로 추정되는 역성사의 석조비로자나불상,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11), 문수·보현보살의 대좌만 남겨져 있는 불국사 비로자나삼존불상(도 12, 13)⁵⁵, 부석사 자인당 석조비로자나불상(도 14),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상(도 15), 영주 성혈사 비로자나불좌상 등을 대표 예로

⁵⁵ 불국사 경내에 있는 이들 삼존불상의 대좌는 사자와 코끼리 대좌로 문수, 보현보살을 좌우 협시로 한 삼존상의 대좌로 확인된다. 특히 본존 불좌상 대좌의 중대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칠사자의 중대는 이 삼존상이 비로자나삼존이었음을 알려준다.



도 14 북지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후반, 보물 제220호, 경북 영주시 부석사 자인당(사진 임영애)



도 15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433호, 상높이 1.28m, 9세기 후반, 보물 제433호, 충북 괴산 각연사 비로전 (국립경주박물관, 『진리의 빛, 비로자나부처』, 2007, p. 33)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문왕대이거나 아무리 늦어도 9세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766년 석남 암사 비로자나불상 이후 858년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상이 만들어지기 까지 기록이나 작품으로 제작연대가 분명하게 드러난 비로자나불상은 없다. 문성왕(재위 839~859)대로 추정되는 실상사 철불이나 성주사 철불 등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⁵⁶ 물론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비로자나불상이 없다고 해서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이 있기 때문이다.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도 간헐적으로 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되었겠지만, 경문왕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한 불교조각의 전반적인 침체기였던 것은 틀림없다.

⁵⁶ 실상사 철불을 문성왕대 제작된 노사나불이라고 본 최근 논고로는 강건우, 앞의 논문, pp. 62-65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처럼 신라의 비로자나불상은 858년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을 시작으로 경문왕대에 그 숫자가 급증하였다. 특히 경문왕대에 비로자나불상이 크게 유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9세기의 정치적 상황이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9세기 전반의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 경문왕대에 이르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원성왕의 직계가 아닌 경문왕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세력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했다. 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강력한 왕권강화책을 통해 왕실의 안정을 이루는 일이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경문왕이 선택한 것은 선사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시도하며 선사들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표1 참조). 왕실이 선사들과의 결연을 통하여 지방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문왕의 부름에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며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승들은 선종을 전파하는 좋은 때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다.⁵⁷ 왕실과 선사들의 긴밀한 관계는 선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고, 선종 사찰은 대집단화되었다.⁵⁸ 당시 선종 사찰은 보통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선승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력의 원천이 되어 거대한 철불을 비롯한 각종 불교미술을 조성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경문왕이 선종만을 배려하였던 것은 아니다. 경문왕이 즉위 초 화엄종 사찰인 승복사를 중창하였고, 황룡사 구층목탑도 중수하였다. 또 수철화상을 왕실로 불러 禪敎同異에 관해 물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문왕은 선교 양종을 가리지 않았고, 나아가 교종과 선종을 융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신라 하대, 특히 경문왕대의 비로자나불상 조성이 화엄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종 사찰은 물론이고 법상종 사찰도 포함하는 불교계 전반의 유행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경문왕의 불교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신라 하대 경주에서의 비로자나불 조성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행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861년 승복사에 왕실발원의 노사나불이 조성되었고, 9세기 후반 불국사에는 비로자나 삼존상이 있었다. 또 경문왕대가 아니기는 하지만 현강왕의妃였던 權氏, 즉 秀圓비구니가 발원하여 887년경 그린 비로자나삼존불화가 불국사 광학장 강

⁵⁷ 과거 신라 하대 선종이 크게 유행하게 된 원인으로 지방호족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김두진, 「신라하대 禪師들의 中央王室 및 地方豪族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20(1988), p. 14), 최근의 연구 성과는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한다(선종사원과 왕실이 호혜적인 관계로 파악한 한기문, 앞의 논문(2011a), p. 25)이 있고, 불가분의 관계로는 조변환, 「신라 하대 선승과 왕실」, 『신라문화』 26(2005), pp. 280-281, 조화 내지 공존의 관계로 본 논고로는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2005), pp. 108-109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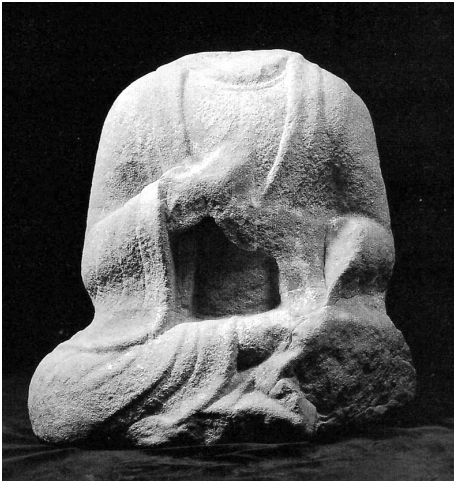
⁵⁸ 한기문, 앞의 논문(2011a), p. 25.



도 16 창림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H,77.0cm, 국립경주박물관(사진 임영애)



도 17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건천 신평리, 현 소재지 불명(사진 임영애)



도 18 석조비로자나불좌상, H,52.5cm,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진리의 빛, 비로자나부처』, 2007, p. 29)

당 왼쪽 벽에 있었다.⁵⁹ 그리고 보면 9세기 후반 불국사에는 8세기 후반~말경 제작된 금동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후반의 문수, 보현보살을 좌우 협시로 하는 석조 비로자나삼존상이 있었고, 887년경의 비로자나삼존불화도 있었다. 9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비로자나불이 2점이나 불국사에 봉안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불국사가 경문왕 및 그 직계 자녀를 포함하는 신라 왕실과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진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창림사 비로자나불좌상(도 16), 이거사 비로자나불좌상, 건천 신평리와 서면 심곡리 심원사

⁵⁹ 大華嚴宗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并序(‘불국사 光學藏의 講室 왼쪽 벽에 그린 불상(비로자나불)은 太傅에 추증된 헌강대왕의 脩媛權氏 법호 秀圓이 尊靈의 명복을 追奉하기 위해 모신 것이다. …媛妃는 … 이에 고개지와 같은 妙手를 불러 부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최영성, 『최치원찬 『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佛國寺阿彌陀佛像讚』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금동아미타여래좌상의 관계재론』, 『한국철학논집』 20(2007), p. 230 ; 이때 그림을 그렸다는 ‘妙手’는 『불국사고금창기』에 의하면 경문왕때 사람으로 그림을 잘 그렸던 원해비구니라고 한다(최영성, 위의 논문, p. 230의 각주12).

의 비로자나석불(도 1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비로자나불좌상(도 18), 동궁 월지에서 출토된 금동비로자나불입상, 국립경주박물관 금동비로자나불입상(도 19), 1965년 분황사 인근 우물에서 발견된 2구의 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도 20).⁶⁰ 이 밖에도 2012년 분황사 탑 부근에서 이들과 유사한 비로자나불좌상 1구가 출토된 바 있어 9세기 중~후반

경주에서도 적지 않은 비로자나불좌상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9세기 중~후반의 경우 비로자나불상이 지방에만 편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역을 가리지 않은 전국적인 유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라 하대, 특히 경문왕대에 불교조각, 그 중에서도 비로자나불이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라 왕실이 있었다. 경문왕 이전의 전조로 847년 성주사 철불, 858년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역시 신라 왕실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절정은



도 19 금동비로자나불입상, H.34.5cm, 국립경주박물관(『진리의 빛, 비로자나부처』, 2007, p. 35)



도 20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후반, 분황사 인근 우물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사진 임영애)

⁶⁰ 발견된 석불들은 불좌상 13개, 보살입상 1, 불두 5, 광배 1, 기타 6점이며, 이들은 지금 경주박물관 미술관 옆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김원룡, 『芬皇寺石佛群』(문화재관리국, 1967), pp. 2-12).

경문왕 시기였다.⁶¹ 이 밖에 신라 하대의 탐비 중 주인공을 알 수 있는 11명의 선사 중 단속사 신행선사를 제외한 10명의 선사는 신라 국왕으로부터 시호와 탐호를 받았다는 점,⁶² 신라 하대 승탑의 신장상이 왕실의 영향 아래 국공이 조성하였을 가능성⁶³ 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라 왕실과 선사들의 긴밀한 관계는 충분히 짐작가능한 일이며, 특히 경문왕 대에는 신라 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불교계를 이끌어 나간 것이 신라 하대 불교미술 융성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문성왕, 헌안왕을 시작으로 경문왕대에 불상, 특히 비로자나불상의 숫자가 급증하게 된 점에 주목한 것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경문왕 재위 15년 동안 정확한 제작시기가 밝혀진 불상만 6구이다. 물론 이 중 3구는 전하지 않지만, 기년명 불상이 드문 신라 조각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수이다. 6구 이외에도 경문왕, 헌안왕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상만도 수십 여구에 이른다. 이처럼 경문왕대를 기점으로 비로자나불상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문왕대 비로자나불상이 유행하는 이유와 더불어 이 시기 비로자나불상의 형식 및 양식적인 특징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학들에 의해 이미 충분히 연구된 바 있을 뿐 아니라 필자의 논의가 경문왕대에 비로자나불상이 특별히 유행한 이유를 살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지금까지 신라 하대의 불교미술은 중앙 정권의 약화, 지방 중심 호족들의 등장과 더불어 불교미술 역시 지방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발전했다고 알려져 왔다. 그 결과 경주 중심의 불상 제작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불상 양식이 등장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문왕대 불교미술의 양상은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경문왕대 불교조각은 지방 호족보다는 왕실과 더 많은 관련이 있으며, 화엄종, 법상종, 선종 등 종파의 구분 없이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고 봉안하였다. 또 분포양상도 경주를 포함하여 전국

⁶¹ 보림사 비로자나불상의 최초 후원세력이 왕실임을 확인한 논문으로는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2013), pp. 38-53이 있다.

⁶² 박상준, 「신라 하대 탐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2002), p. 47.

⁶³ 강삼해, 「나말여초 승탑 탐신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2006), p. 88.

적이어서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만 편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경문왕대 불상, 특히 비로자나불상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신라 하대 원성왕계 왕으로서의 그의 입지가 약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였다. 현안왕의 사위로 왕위에 오른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강력한 왕권이었다. 특히 지방통치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선사들의 힘이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끊임없이 선승과의 교류를 시도했고, 선교의 구분을 두지 않고 불교를 후원하고 불교미술을 조성함으로써 왕실의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특히 비로자나불상은 그 어떤 불상보다도 경문왕 전제왕권의 메타포로 적합했다. 물론 경문왕대 조성된 불상이 모두 왕실의 후원아래 조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문왕의 강력한 불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전국적인 불교조각을 비롯한 각종 불교미술의 융성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경문왕은 신라 불교미술의 마지막 불꽃을 피운 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_송복사(Sungboksa Temple), 경문왕(King Gyeongmun), 비로자나불상(Vairocana Buddha image), 신라하대(late Silla), 선승(Zen monk), 철불(iron Buddha)

■ 투고일 2013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3년 3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19일 ■

참고문헌

『東文選』卷33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景文王11, 13年.

『三國遺事』卷3 塔像 4 黃龍寺九層塔.

安鼎福『東史綱目』第五上 甲午條.

『長安寺毘盧遮那佛銘文』, 『楡岾寺本末寺誌』, 1994, pp. 384-385.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pp. 45, 30-34.

강민기, 이숙희, 장기훈, 신용철 지음, 『클릭 한국미술사』, 예경, 2011, p. 109.

강삼혜, 「나말여초 승탑 탑신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2006, p. 88.

강우방, 「한국 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 『원용과 조화』, 열화당, 1990, pp. 427-479.

강희정, 「신라하대의 석조비로자나여래좌상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pp. 36-67.

곽승훈,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pp. 221-231.

권덕영, 「홍각선사탑비문을 통해 본 신라 역성사지의 추정」, 『사학연구』 55·56, 1998, pp. 80-83, 87-88.

김리나 외, 『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2011, p. 66.

김리나·이숙희, 「통일신라시대 智拳印 毘盧舍那佛像 研究의 쟁점과 문제」, 『미술사논단』 제7호, 1998 하반기, pp. 227-263.

김상현, 「삼화사철불과 華嚴業 法言大德」, 『文化史學』 11·12·13, 1999, pp. 435-451.

김상현, 「新羅下代 華嚴思想과 禪思想: 그 갈등과 공존」, 『新羅文化』 6, 1989, p. 85.

김영수·황수영, 「知異山 實相寺事蹟(上)」, 『미술사학연구』 108, 1970, p. 21.

김원룡, 『芬皇寺石佛群』, 문화재관리국, 1967, pp. 2-12.

김창겸, 「신라경문왕대 「修造役事」의 정치적 고찰-왕권강화책과 관련하여-」, 『계촌 민병대학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 성동문화사, 1988, pp. 55-58, pp. 67-68.

김춘실, 「聖住寺의 鐵佛」, 『考古美術史論』 6, 1999, p. 96.

남동신, 「나말여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pp. 108-109.

문명대, 「불국사 석비로자나삼존상 대좌」, 『한국의 불상조각』 2, 도서출판 예경, 2003, pp. 291-298.

문명대, 「신라 하대 편년 비로자나불상」, 『한국의 불상조각』 2, 도서출판 예경, 2003, pp. 212-257.

문명대, 「元曉系 華嚴宗 本尊佛 問題와 三和寺 鐵盧舍那佛像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36, 2002, pp. 69-96.

문명대, 『한국조각사』, 열화당, 1984, pp. 160-161.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2002, pp. 307-314.

- 박상준, 「신라 하대 탐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p. 47.
-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pp.38-53.
- 서지민, 「나말여초 비로자나불상 제 형식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10, 2010, pp. 53-69.
- 송은일, 「신라하대 경문왕계의 성립」, 『전남사학』 22, 2004, p. 131.
- 이기봉, 「신라 경문왕대의 정국운영과 재이」, 『신라문화』 39, 2012, pp. 93-94.
- 이숙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 250·251, 2006, pp. 55-68.
-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신라문화』 38, 2011, p. 290
- 임영애, 「신라하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왕릉 조영과 왕릉 조각의 시기 불일치 문제-」, 『불교미술사학』 14, 2012, pp. 7-33.
- 장일규, 「송복사 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역사학보』 192, 2006, p. 63.
- 전택재, 「신라 경문왕,현강왕대 漢化政策의 추진과 그 한계」, 『동양학』 50, 2011, p. 67.
- 전미희, 「신라 경문왕, 현강왕대의 「能官人」登用政策과 國學」, 『동아연구』 17, 1989, pp. 45-59.
- 정동락, 「수철화상(815~893)과 신라왕실」,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p. 101.
- 조범환, 「신라 하대 경문왕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16, 1999, pp. 29-44.
- 조범환, 「신라 하대 선승과 왕실」, 『신라문화』 26, 2005, pp. 280-281.
- 조범환, 「신라하대무진주지역 불교계의 동향과 쌍봉사」, 『제주해양포럼』 2004-1, 2004, pp. 47-62.
- 최성은, 「장보고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32, 2010, p. 15.
- 최영성 역주, 『최치원 전집 1 사산비명』, 아세아문화사, 1998, pp. 234-235.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1992, pp. 191,206.
- 한기문, 「고려시대 봉암사와 희양산파의 추이」, 『불교연구』 34, 2011, p. 54.
- 한기문, 「고려태조의 불교정책」, 『대구사학』 22, 1983, p. 41.
- 한기문, 「신라말 선종사원의 형성과 구조」, 『한국선학』 2, 2001, pp. 14,25.
- 허홍식, 「고려시대의 새로운 금석문자료」, 『대구사학』 17, 1979, pp. 2-3.
-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아세아문화사, 1984, p. 251.
- 황수영, 「삼화사 신라철불좌상의 背刻銘記」, 『한국문화유산의 위상제고』, 동해문화원, 1997, pp. 19-24.
- 황수영, 「통일신라시대의 철불」, 『미술사학연구』 154·155, 1982, pp. 22-23.
- 황수영,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8, pp. 160-161.
- Lim Youngae, “Vairocana Buddha of Dopiansa Temple”, *Koreana* Vol,22, No.2, 2008, pp. 50-53.

국문초록

경문왕 재위 15년 동안 정확한 제작시기가 밝혀진 불상만 6구이다. 기년명 불상이 드문 신라 조각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많은 수이다. 흥미롭게도 존명을 알 수 없는 안락사의 철조장육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이다. 물론 이 중 3구는 현재 전하지 않아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6구 이외에도 경문왕, 현안왕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상만도 수십 여구에 이른다. 이처럼 경문왕대를 기점으로 비로자나불상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경문왕대에 불상, 특히 비로자나불상의 숫자가 급증하게 된 점에 주목한 것이다.

지금까지 신라 하대의 불교미술은 중앙 정권의 약화, 지방 중심 호족들의 등장과 더불어 불교 미술 역시 지방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발전했다고 알려져 왔다. 그 결과 경주 중심의 불상 제작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불상 양식이 등장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문왕대 불교미술의 양상은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경문왕대 불교조각은 지방 호족보다는 왕실과 더 많은 관련이 있으며, 화엄종, 법상종, 선종 등 종파의 구분 없이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고 봉안하였다. 또 분포양상도 경주를 포함하여 전국적이어서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만 편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경문왕대 불상, 특히 비로자나불상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신라 하대 원성왕계 왕으로서의 그의 입지가 약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였다. 현안왕의 사위로 왕위에 오른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강력한 왕권이었다. 특히 지방통치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선사들의 힘이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끊임없이 선승과의 교류를 시도했고, 선교의 구분을 두지 않고 불교를 후원하고 불교미술을 조성함으로써 왕실의 안정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경문왕의 불교정책은 선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고, 선종 사찰은 대집단화되었다. 당시 선종 사찰은 보통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선승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력의 원천이 되어 거대한 철불을 비롯한 각종 불교미술을 조성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불교조각 중에서는 비로자나불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비로자나불상은 그 어떤 불상보다도 경문왕 전제왕권의 메타포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물론 경문왕대 조성된 불상이 모두 왕실의 후원아래 조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문왕의 강력한 불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전국적인 불교조각을 비롯한 각종 불교미술의 융성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에 경문왕은 신라 불교미술의 마지막 불꽃을 피운 왕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t Sculpture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mun, Late Silla

Lim Young-ae *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Silla produced six Buddhist statues during a period of fifteen years when it was under the rule of King Gyeongmun (r. 861-875). The number is quite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the kingdom's Buddhist statues carrying clear production dates are very rare. Interestingly, five of these are of Vairocana Buddha while the identity of the remaining one, an sixteen feet iron buddha enshrined in Allaksa Temple, is yet to be known. Unfortunately, three of the statues are not known of their whereabouts. Apart from them, there are currently several tens of Vairocana Buddha images which are believ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period when Silla was ruled by King Gyeongmun and his predecessor King Heonan (r. 857-861).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unanswered question why Silla people of the period were so eagerly attracted to Vairocana Buddha image.

The dominant view of the Buddhist art during the late Silla Period has been that the emergence of powerful regional warlords of the period weakened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grew into a new patron for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t, helping it freed from the influence of the Silla capital Gyeongju and more focus on the diversity of regional traditions. The view, however, cannot explain the fact that the Buddhist artists of Silla under the King Gyeongmun's rule were more closely related with the royal family than regional warlords and interested in worshipping Vairocana Buddha image regardless of the schools they belonged to. By the same token, the statues were made not just for the worshippers in the

*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Gyeongju University

regions but for those in the capital. Capital but for those outside it.

The widespread worship of Vairocana Buddha image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mun was related with the diminished royal authority he had to suffer as a successor from the line of King Wonseong during the late Silla Period. Coming to power as the King Heonan's son-in-law, he needed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ctively sought cooperation with influential Zen monks outside the capital for a more efficient rule of the regions and supported Buddhism to ensure stability and legitimacy of the royal family he headed. The King Gyeongmun's policy greatly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Zen Buddhism and the appearance of large Zen monasteries and temples. These communities of Zen Buddhism were consisted of several hundred, even thousand, monks whose labor played a crucial role in carrying out large-scale religious projects such as the production of giant iron statues. As for the Buddha statues, Vairocan Buddha image was preferred largely because his symbolism would better justify the King Gyeongmun's autocratic rule. While not all the Buddhist statues of the period were made under the patronage of the royal family, it is clear that the King Gyeongmun's sponsorship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t during the late Silla Period. That is why we can conclude that King Gyeongmun was the last Silla ruler who flourished the Buddhist art of Silla.